

“대선 승리로 지역발전 앞당길 것”

민중 경제·부안 지역위, 필승 결의대회 개최

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가 29일 오후 9시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 필승 결의대회’를 김제와 부안에서 각각 개최하고,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제4기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비바람을 김제·부안에서부터 일으키자고 결의했다.

이날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당원 필승 결의대회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김제·부안의 시도위원과 핵심 당원 20여명이 참석해 김제·부안의 선대위 구성 현황 보고 및 위촉장 수여식 그리고 당원별 1분 결의 소감 발표와 선대위 각 기구별 활동 방향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제·부안 지역위원회는 이번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공정에 기반한 전환적 경제성장과 민생안정, 국가균형 발전으로 규정하고,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도 MZ 세대의 대학생과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10대 학생 등을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하는 등 청년의 목소리와 청년이 지향하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젊고 역동적인 선대위를 구성했다.

특히, 선대위 산하에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노동, 농어민, 다문화, 민생, 직능, 자치, 교육, 탄소중립 등 각 분야별 상설 위원회를 구성, 김제·부안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고 기본소득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앙 선대위와의 소통 채널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은서 위원장(부안 서립여고 3학년)은 “농촌 기본소득과 국민적 눈높이에서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미소(20대 청년) 공동위원장은 “새민국의 친환경적 개발과 속도감 있는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라며 “MZ 세대 등 더 많은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지역위원회가 29일 오후,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 필승 결의대회’를 김제와 부안에서 각각 개최하고,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제4기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비바람을 김제·부안에서부터 일으키자고 결의했다.

수 있도록 선대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국민 중심 정부, 국민의 고통과 한숨을 덜어 드리는 더 새롭고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고, 민생을 챙기며, 김제·부안의 지역발전을 앞당기자”고 결의했다. /유호상 기자

내년 정읍·고창 국비예산 정읍 10.8%·고창 13.3% ↑

윤준병 의원, “올해 이어 2년 연속 공약 이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2022년 정읍·고창 지역 국비 예산에서 정읍 10.8% 고창 13.3%의 증가된 예산을 각각 확보해 정부 예산신장률(8.9%)보다 높은 신장률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지역 국비예산은 정부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정읍·고창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정읍 12.1%, 고창 10.8%에 이어, 올해 예산까지 2년 연속 정부 예산신장률보다 높은 국비확보 신장률을 달성해 ‘지역현안 해결사’로서 면모를 발휘했다.

정읍시 정부예산 반영 주요 핵심 신규 사업으로는 ▲정읍 부안-칠보 2차로 개량(총사업비 1,019억), ▲수요 맞춤형 제약공정 핵심인력 양성센터(총사업비 180억), ▲고부천 상습침수구역 정비(총사업비 60억), ▲무성서원 수련원 건립(총사업비 58억),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총사업비 55.5억), ▲정읍시공립 실감콘텐츠 제작(총사업비 30억), ▲GMP기반 농축산업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총사업비 100억), ▲가족친화 공공차량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433억), ▲중앙처리구역(북면·정우·태인)하수관로 설치사업(총사업비 162억), ▲입암 봉양 농

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총사업비 21억), ▲스마트 하수처리장 관리체계 구축(총사업비 60억), ▲부전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총사업비 90억) 등 총 12건이 반영됐다.

고창군 정부예산 반영 핵심 신규 사업으로는 ▲부안~고창 노월대교 국도건설(총사업비 3,390억),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총사업비 196억), ▲드론전문교육 및 체험센터 구축 용역(총사업비 2억), ▲구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70억),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70억),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94억),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총사업비 47억), ▲상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62억), ▲고창 선운사 참담당 대응전 석축정비 설계(총사업비 0.5억) 등 총 11건이 반영됐다.

정읍·고창 핵심 신규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대해 반영됨에 따라, 정읍·고창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종자돈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한 마음 한 뜻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전북도 및 정읍시·고창군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공공기관 지역본부 통폐합 전북 몫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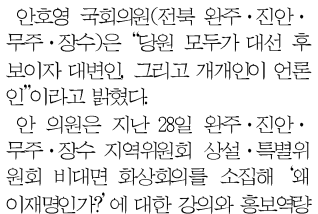
박용근 전북도 의원이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지역본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전북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광주광역시로 흡수 통합을 결정하면서 독자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돼 도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0년 기준 호남권역을 담당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 곳인데, 이중 전북은 고작 9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미지도 축소나 폐지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이 한은 IX 우체국, 코메일 등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호남이라는 차원에서 광주·전남에 조직이 예측되는 것을 적극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은 “도내 소재 공공기관의 축소·폐지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북도가 적극 대응해 전북 몫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당원 모두가 후보이자 대변인”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당원 모두가 대선 후보이자 대변인, 그리고 개개인이 언론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비대면 화상회의를 소집해 ‘왜 이재명인가?’에 대한 강의와 홍보영상 강화를 위해 ‘내가 언론인’이라는 SNS·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20대 대선을 7여 일 앞둔 시점에서 SNS를 통한 후보자 및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당원 개인 단위의 홍보활동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살(실적, 실적, 실천)로 표현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물 경쟁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단위 공약이 실질적인 민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호영 의원은 “당원 각자가 대선 후보이자 대변인”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천하고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당원

안호영 의원, 민주 원진무장 지역위 상설·특별위 화상회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28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비대면 화상회의를 열고 당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개개인이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90여 명의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 상설·특별위원장이

참가한 이날 교육에서는 유튜브 등 SNS 플랫폼 활용 및 콘텐츠 제작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유호상 기자

도선관위 상임위원회 강성배씨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1일자로 강성배(57) 상임위원(1급, 관리관)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성배 상임위원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관 및 정당과장,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한 선거행정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뛰어난 업무추진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복선관위는 2022년 1월 1일자로 5급 이상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4급(서기관) 전보 ▲정병진 김제 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병수 원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5급(행정사무관) 전보 ▲강선미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백성하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송승현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유호상 기자

민주 전북도당 “공직선거법 정개 특위 통과 환영”

‘25세에서 18세로 정치참여 연령 인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소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은 “반기문 소

식’이라고 전하며, “그동안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인해 지금껏 청년들의 참정권은 반쪽짜리였다. 앞으로 만18세 후보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라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이명연 도의원, 아동학대

아동권리 보장 정책제언

전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전주11)이 전북이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지영)과 지역 내 아동권리 옹호 및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전달식을 지난 28일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전북이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권리체험전 3회에 주제를 1뿐인 5늘의 우리아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제언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제언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당사자인 아동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권을 위한 놀이터 및 공원 확보, ▲안전한



전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이 전북이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내 아동권리 옹호 및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전달식을 지난 28일 진행했다.

리과 관련한 전년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이나 보호자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의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터 및 공원 확보,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한 아동 놀이터 휴먼규제 강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주차 공간 확보 등 아동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유호상 기자

우범기 전 부지사,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4일, 연합 매일신문과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인물연구원, 뉴스파일, 교통교육복지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1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그는 기획예산처 시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광주 부시장 시절, 광주형일지를 태동하게 했고, 부지사 재임시에는 군산형일지 지정을 이끌어내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만금공항 예산 요구는 90억 원이었으나, 기재부에서 200억 원을

반영토록 하는 등 전북의 2년 연속 국고예산 8조 원 시대를 열며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신남 대개조’ 선정, 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수소융합사업지원센터 유치, SK 컨소시엄·OS글로벌, 쿠팡 물류센터 등 기업 유치 등 다수의 성과를 냈다.

우 전 부지사는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발휘해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 바가 커 사회공헌 부문에 인정받아 이어와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우 전 부지사는 “2021년을 빛낸 힘으로 임인년에는 인구 68만 명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20대 도시로 밀려나고 있으며,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쾌속 순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새만금 관련 ‘새만금항 인입철도’(국토부, 1조 3,282억원),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환경부, 2,88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 개정 이후, 본격적인 2단계 사업 개발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새만금의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 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안종모)은 그동안 관련부처, 전북도 등과 함께 동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청으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대규모 재정사업을 직접 발굴·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공항·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수목원’ 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국가집단지사 구축사업도 올해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내년도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